

# ‘관광객 1000만’ 전주 한옥마을 식지않는 인기

지난해 1053만 9700명 방문  
3년 연속 1천만명 넘어서  
20~30대 등 연령별 고른 분포  
덕진공원 등 인근지역 분산효과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이 3년 연속 1000만명을 넘어서다. 드론으로 촬영한 전주 한옥마을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이 3년 연속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 수가 내국인 1040만3038명과 외국인 13만6662명 등 총 1053만9700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2월 전주시민 및 2시간 미만 체류 인구를 제외한 통신데이터와 외국인 로밍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16년 1064만8000여명, 2017년 1109만7000여명에 이어 3년째다.

이들 내국인 여행객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19만여명(2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08만여명(20%), 40대 200만여명(19%), 50대 169만여명(16%), 60대 이상 142만여명(14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50만9000여명으로 여성(489만3000여명)보다 많았으며 월별로는 100만6000여명이 찾은 3월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방문객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전체의 41%(5만6585명)로 가장 많았

고 일본(12%), 미국(8%), 대만(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주를 찾은 전체 방문객은 총 5654만여명으로 집계돼 2017년 4800만여명보다 18%가량 증가했다.

또 실제 전주 방문객의 밀집도를 보여준 빅데이터 핫스팟 분석결과에서는 과거 한옥마을에 집중된 방문객이 덕진공원 인근

과 서부 신시가지 주변을 포함한 3개 권역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자만벽화마을과 남부시장 일대로 방문객의 발길이 확산되고, 덕진공원 인근의 경우에는 덕진연못과 동물원을 중심으로 전북대와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역 첫마중길, 아중호수 일대까지 외래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젊은층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방문 연령층의 변화와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소비층의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글로벌 문화관광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 운곡습지·부안 채석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총력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이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 등 도내 서해안권의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최근 업무 협약을 했다.<사진>

이들 자치단체는 협약식에서 우선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의 세계지질공원 후보지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후보지에 선정되면 2022년 인증을 목표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기

로 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는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은 고창의 운곡습지·고인돌군·선운산, 부안의 직소폭포·채석강·모항 등 총 12곳이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관광객 유치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항 다목적관리부두 건설공사 착공

군산해수청, 유흥지에 해경함정 접안 시설 등 확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유흥지에 해경 함정 및 군산대학교 실습선 등의 접안을 위한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공사’를 착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4~6부두 사이에 대형 해경 함정 전용 계류 시설이 없어, 컨테이너부두에 임시계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 효율 저하 등으로 전용부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까지 490억원의

투입해 3000t급 2척을 포함한 16척의 해경 함정과 군산대학교 3000t급 실습선 1척이 동시 접안 가능한 다목적 관리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

홍상표 군산해수청장은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 추진으로 해경 함정 운영 효율 제고 및 사고 대응 시간 축스와 동시에 항만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군산항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산=박근식 기자 nogusu@

## 남원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남원시는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화장품센터) 주관으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산업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달라진 법규를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규와 표시기준, 기능성화장품 등이 소개됐다. 또 화장품광고와 같은 실무중심 교육과 빅데이터 활용한 화장품 마케팅 설계 교육 등도 진행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지원기관

### 광양시 최종 선정...국비 5억원 확보

광양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빅데이터분석 및 클라우드기반 자유희망형 축제통합플랫폼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30여 개의 지자체가 응모해 서면심의로 5개 기관이 우선 선정됐고, 1차 선정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발표평가에서 광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비 5억원 전액을 국비로만 충당해 더욱 의미가 있다.

클라우드 기반 ‘축제 통합플랫폼’은 각종 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홍보·분석, 안내에 이르는 축제의 모든 과정을 관장

하는 서비스로 축제 주관 기관에게는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상황에 맞는 이용편익을 도모한다.

또 플랫폼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호 호환 및 보안이 가능하며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량화 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시 대표축제인 매화축제와 숯불구이축제, 전어축제 등에 접목할 계획이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가 추진하는 각종 축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진도개 경주·줄넘기 보러 오세요”

진도개테마파크, 내달 2일부터 다양한 공연 시작

진도군이 진도개테마파크 진도개 공연을 시작한다.<사진>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12월 말까지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도개의 우수한 재능을 널리 알릴 세계적 명경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매주 주중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진도군 진도개테마파크 내 공연장에서 20분 동안 숫자 맞추기, Dog 댄스, 현수막 올리기, 어질리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주말에는 진도개공연단과 진도개경주

단, 진도스포츠복합동조합과 함께 오후 1시부터 45분 동안 진도개 경주, 줄넘기, 링 통과, 댄스 등 진도개의 우수한 재능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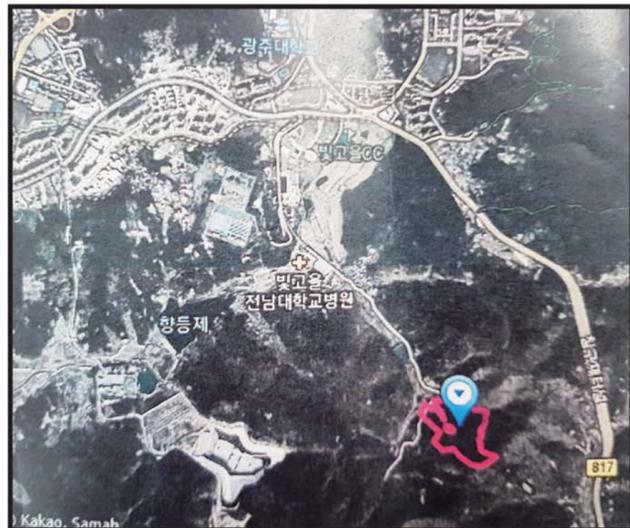
진도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도개테마파크 내에 사육장, 진돌이 썰매장, 강아지 체험·분양장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개테마파크 공연에서 진도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진도개테마파크를 방문하면 볼거리·즐거거리·체험거리 등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공유지분 300평
- 전체 22600평중 일부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